



'2013 U대회 광주로' 실사 D-2

☞ 미리 가본 실사 현장

정부 "혁신도시 수정 재검토 논란 재연"

대운하도 "추진" 가닥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자 새 정부의 국토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예상됐던 한반도 대운하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건설은 수정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혁신도시·행정도시 수정=참여정부에서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상당 수준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와 관련해 정중환 국토부장관은 "실효성있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가 이미 착공했고 토지보상도 적게는 63%, 많게는 95%까지 진행된 상황이라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통체계를 광역적으로 하는 방안과 교육 문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통합할 계획 등이 나오면 이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이며 혁신도시 수요를 줄이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개 혁신도시 사업자인 토지공사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수를 3-4개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토지공사 관계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수가 줄어든 수도 있다는 뒷맛은 그대로 남는다. 관가에서 떠돌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설도 일단 수면위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운하도 "추진" 가닥=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간업체에서 민간사업제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민간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 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국내의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만명 '인간띠 환영' 유치 열망 전달

실사단 6명 국민급 의견·예우 펼치기로

국제 경기 펼쳐 진행 역량·스포츠 사랑 과시

2012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나 2011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권을 거머쥔 중국 선전 등 대형 국제행사를 끌어온 도시들의 공통점은 현지 실사를 심분 활용했다는 점이다. 경쟁국에 비해 유리할 것 없는 여건속에서도 실사단에 시인들의 강렬한 유치 열망과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표심을 움직인 것이다.

지난달 스페인 비고에 대한 실사를 마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다음달 광주에 이어 러시아 카잔까지 3개 후보도시를 모두 방문한 뒤 객관적인 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27명의 집행위원들에게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오는 5월31일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광주시와 2013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는 스페인 버그 단장 등 6명의 실사단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 때까지 국민급에 준하는 의견과 예우, 감동을 선사할 시민환영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20만명의 시민들이 인간띠를 이뤄 대대적인 환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총장 등 각계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실사단 환영 시민 준비위원회'(위원장 전호중 조선대 총장)가 환영 행사를 주도한다.

우선 실사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1일에는 현장에 레드카펫을 깔아 분위기를 띄우고 어린이 6명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간 대학생이 주축이 된 2천명의 환영단이 환호로 실사단을 맞이한다. 이어 공항에서부터 숙소인 신양파크호텔까지 이동하는 도로변에는 시민 5만명이 줄지어 서서 6개국 실사위원 사진이 새겨진 피켓과 국기, 환영 배너 및 플래카드를 흔들며 뜨겁게 환영한다. 실사단을 태운 전용리무진버스는 경찰 오토바이 10대와 차량 3대가 앞뒤에서 에스코트한다.

숙소에도 'Welcome to Gwangju', 'We love FISU'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설치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일 인프라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환영만찬이 끝나고 오후 7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U대회 유치기원 시민축제'에는 3만명의 시민이 참석, 뜨거운 개최 열망을 표출하고 100만명이 참여한 유치기원 서명부를 꽃마차에 실어 실사단에게 전달한다.

3일 국립5·18 민주묘지와 월드컵경기장, 조선대, 호남대 등 실사단 방문현장과 주요 이동로에도 2만여명의 환영인파가 함께 한다. 경기장 방문에는 한·일 핸드볼대회 등 5개 경기를 직접 치러 국제 수준의 경기 운영과 시민 응원을 통해 '스포츠 사랑'을 과시한다.

실사단이 헬기로 광주의 인프라와 시설을 둘러보는 4일에는 하늘에서도 환영 열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시가지 가로변에 심어진 250만포기의 꽃잔디와 50만그루의 개나리·철쭉, 10여곳에 설치된 환영 꽃탑과 꽃기둥도 그 중 하나다. 출국일인 5일에도 극락교~광주공항간 주요 이동로에 5만여명의 시민들이 환송에 나서 계획이다.

하는 도로변에는 시민 5만명이 줄지어 서서 6개국 실사위원 사진이 새겨진 피켓과 국기, 환영 배너 및 플래카드를 흔들며 뜨겁게 환영한다. 실사단을 태운 전용리무진버스는 경찰 오토바이 10대와 차량 3대가 앞뒤에서 에스코트한다.

숙소에도 'Welcome to Gwangju', 'We love FISU'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설치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일 인프라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환영만찬이 끝나고 오후 7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U대회 유치기원 시민축제'에는 3만명의 시민이 참석, 뜨거운 개최 열망을 표출하고 100만명이 참여한 유치기원 서명부를 꽃마차에 실어 실사단에게 전달한다.

3일 국립5·18 민주묘지와 월드컵경기장, 조선대, 호남대 등 실사단 방문현장과 주요 이동로에도 2만여명의 환영인파가 함께 한다. 경기장 방문에는 한·일 핸드볼대회 등 5개 경기를 직접 치러 국제 수준의 경기 운영과 시민 응원을 통해 '스포츠 사랑'을 과시한다.

실사단이 헬기로 광주의 인프라와 시설을 둘러보는 4일에는 하늘에서도 환영 열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시가지 가로변에 심어진 250만포기의 꽃잔디와 50만그루의 개나리·철쭉, 10여곳에 설치된 환영 꽃탑과 꽃기둥도 그 중 하나다. 출국일인 5일에도 극락교~광주공항간 주요 이동로에 5만여명의 시민들이 환송에 나서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야3당 쇄고기 '상임위 청문회' 합의

한 "농해수위 현안 보고 후 해도 안늦어"

민주당 등 야3당은 28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와 관련, 국회의 아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원 농해수위에서 관계기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들어본 뒤 청문회 개최 문제를 따져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쇠고기 개방문제를 따지기 위한 농해수위 청문회를 추진하고 한나라당의 동참과 참여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야3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3당 대변인은 이날 "4월 임시국회의 민생현안으로 쇠고기 문제를 설정하고 청문회 개최 합의를 재확인했다"며 "다만 주무 상임위원 농해수위

에서 청문회를 추진, 관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당초 청문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서, 한나라당이 국회 청문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며 "반은 우리가 양보하고 반은 청문회를 관찰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서 청문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대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 쇠고기 문제를 따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3당은 2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후 5월 중순에 청문회를 개최할



“쇠고기 협상 다시하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는 계획이다.

또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정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질의한 뒤 청문회를 열어도 늦지 않라며 야권의 상임위 청문회 강행 방침에 부정적 입장

을 나타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농해수위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상임위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굳이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선진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 교수는 행정수도 반대 운동을 주도한 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조차 결여되어 있

는 최 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혁신도시 사업을 유야무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 교수 내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새 정부가 혁신도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인선"이라며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반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최 교수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3 U-World Cup
전통문화·스포츠·관광
국제대회 개최 선행

세계 최대의 전통문화
축제사육신제

세계 최대의 전통문화
축제사육신제